

“혁신적 진안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생태환경 도시 조성·지역소멸위기 극복 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전 예비후보는 “저는 오늘 제대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저의 핵심 공약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어렵고 힘든 코로나1기를 잘 견디며 함께 해주시는 진안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희망차고 새로운 ‘혁신적인 진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에서 첫째, 진안을 중심지 확장을 추진하여 진안을 건강한 생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진안을 중심지를 상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 재생사업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진안군의 유흥지를 활용하여 주거단지와 행정단지 등을 조성하여 진안읍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교육을 지원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에 있는 특성화학교와 혁신학교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특성에 맞는 산림과학 설립을 지원하고 일반 초·중·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진안의 아이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 속에서 교육받게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거와 돌봄자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젊고 행복한 진안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국가산림고원조성과 산림관광 특구 지정으로 진안고원을 문화관광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권 국립산림치유원과 함께 ‘지역권 산

림고원 조성, ‘산림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진안을 동부권 산악지역을 선도하는 생태관광 중심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테마파크와 레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대단위 숙박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농민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마련하고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 확대하고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도록 가격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농산물과 농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특화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진안, 되돌아오는 진안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학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진안을 떠났던 청년·장년층들과 은퇴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안정적 정착을 이룰 수 있는 귀향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 진안미래상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행안부 특교세 10억원 확보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철연선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사업 탄력

무주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1차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6억 원과 철연선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사업 4억 원을 확보했다.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사진)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상황에서 무주군의 각종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기여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철연선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안성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철연선(중산마을~용추마을) 농어촌도로의 선형개선 및 배수개선을 통해 도로의 용량의 통행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앞서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과 군 관계자들은 아열 사업에 대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특별교부세 배정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사진)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상황에서 무주군의 각종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7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 기대

무주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관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911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1~2년차는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부터는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전 연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집합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교육을 이수하면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선거기간인 오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 실시가 불가해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된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교육 교재를 받아 학습하고 30일 이내 제출하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현역 참여 대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으로 해오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며, 행안부는 “비상소집 훈련은 자영업자 생계형 일일근로자 등 대원의 참여 기회와 대리 참석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군은 2018년부터 전북 최초로 5년차 이상 대원들에게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실시 해오고 있다.

오해 등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 요령 방폭탄 착용법 △비상소집훈련 등 응급처치 △화재초기진화 및 화재 대피요령의 4개 필수과목을 포함해 △경보발령 및 평시대비요령 △테러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을 포함한 9개 선택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 1시간 시청 후 객관식 20문제를 풀어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되고 연 1회만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 무주군 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검색, 교육

무주군,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본격화

무주·장수·함양·거창군 실무진 무주서 실무회의 갖고 사업 점검

영·호남을 잇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본격 시동을 건다.

10일 무주군과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팀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실무회의를 열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용역 시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측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방향과 사업 일정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날 실무회의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12월 둘레길 노선 지정·고시, 오는 23년 상반기 사업 착수에 이어 24년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의

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무주리조트에서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거창군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덕유산 둘레길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협약을 통해 덕유산 둘레길의 조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덕유산권역의 자연경관 보호 △가치 있는 문화·역사 등 자원의 발굴·복원 △덕유산 둘레길 주변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0일 무주군과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팀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덕유산 주변에 2개 도 4개 군(무주 80km, 장수 20km, 함양 10km, 거창 50km) 15개 면의 숲길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80억 원(무주 40억)을 투입해 숲길 신규개설을 비롯해 노면 및 부대시설 등 기존 숲길 정비, 둘레길 안내 시설(방향 표지판 안내판),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산림복지와 산림휴양팀 이경일 팀장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덕유산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향토·산림·역사·문화를 숲길과 연결하는 목표를 갖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덕유산 둘레길이 4개 지자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명품 숲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업인 역량 강화 장소농 육성 교육생 모집

장수군이 농업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장소농 육성 교육생을 모집한다.

장소농 육성 교육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체의 기술·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해 농업인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에 장수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경

영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규모의 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다.

장소농으로 선정되면 역량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자율모임체 활동 등이 이뤄지며, 특히 이번 교육에는 농산물 유통 및 온라인 실시간 판매(라이브커머스) 과정을 포함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수군, 2022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장수군이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17개교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 2022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학생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약 306명 명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검진이 이뤄진다.

검진은 신체계측,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학년별·신체발달 사형별 검사항목을 구분해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대상 아동들 중 비만도가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장수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20일까지 만 19세 이상 군민 대상

장수군이 오는 20일까지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APP)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코데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장수군민으로 모바일 기반 건강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디바이스(활동량계) 및 사용 매뉴얼을 배부받아 건강검진 및

전문가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평가를 받게 되며 지속적인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이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평일 근무로 인해 보건의로된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운동, 건강관리, 식습관 등의 개선을 통해 뇌졸중,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비만,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ICT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군민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청 도움창구 운영

진안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5월 1일~31일은 2021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기간이며,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5월 12일~31일까지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군청사 1층 재무과에 설치된다.

운영대상은 2021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중에서 모두채용대상자(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공하는 대상자)인 고령자, 장애인에 한한다.

그 밖에 단순신고자들을 대상으로는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서로 방문해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터널식 해기림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은 터널식 해기림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관내 인삼 재배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저온, 폭설, 고온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 재해를 줄이고,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국비 공모사업에 진안군이 전국 9개소 중 1개소로 선정돼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8년차 재배 농가 면적 4,000㎡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

터널식 해기림 인삼재배 신기술 사업은 내재해형 터널식 인삼 해기림 시설 설치로 자체 해결을 높이고, 농작업 개선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삼 재배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범사업이다.

차광막에 지주목을 세워 운영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소형 터널과 천장 차광자를 덮고,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진안군은 전국적인 인삼 주재배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불철저한 현상과 여름철 고온 현상을 비롯해 가뭄, 태풍의 피해가 잦고 있어 인삼 이상기상을 대비한 신기술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해 이번 실증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군은 이번 신기술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재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신기술 적용이 안전한 인삼재배가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코로나19, 기상이변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